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 개발*

이 병 속** · 김 명 애** · 고 효 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은 육체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으로서 스스로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통합적 차원이다. 성은 구체적인 성행위와 정체감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는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 하여 성적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성적 안위를 가져온다(Citron & Kartman, 1982). 성정체감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지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에 대한 지각에서 도출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감각(Haffner, 1994), 개인의 성적 존재에 대한 지각에서 도출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감각(Drench & Losee, 1996)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성정체감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난 공식적 표현이 성역할이다(Money & Erhardt, 1972). 성역할은 성정체감의 공개적 표현으로서(Derogatis & Melisaratos, 1979),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에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말한다. 성역할 개념에는 남녀가 자신의 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회와 시대마다 다르다.

성역할에는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는데, 최근 서양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sex role'이라는 말 대신 'gender rol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Korea Britannica Online, 1999). 일반적으로 gender는 학습을 통해 획득하는 남성, 여성으로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이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유동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개념이다(Yang et al., 1996).

성역할 정체감은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Choi, 1998), 전체적인 인간의 성정체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도 설명된다(Shively & DeCecco, 1977). 인간이 자신의 성에 대한 분별이 시작되면서 문화적으로 고착화된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한 정형화가 이루어지며, 이렇게 형성된 성역할 정체감은 살아가면서 변화된다(Shively & DeCecco, 1977).

인간은 계속 변화되는 성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특히 건강상태나 질병, 스트레스, 위기 등은 성정체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성정체감의 위기는 인간의 중요한 건강문제이다(Choi et al., 1999). 미국의 경우 여성의 성정체감의 변화가 기본적인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Savage, 1981). 또한 성역할 정체감은 자아존중감, 정신 건강, 우울, 건강행위 수행

* 본 연구는 1999학년도 계명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과제임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투고일 2001년 11월 28일 심사외퇴일 2002년 3월 18일 심사완료일 2002년 4월 29일

및 지각된 건강상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oi et al., 1999).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인간의 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간호대상자들에게 발생한 성역할의 변화와 이로 인한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 경향을 간호중재를 위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필요하다.

현재 성역할 정체감 사정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BSRI(Bem Sex Role Inventory)이다. BSRI는 Bem이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1974과 1977년, 성인의 남성성, 여성성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60문항의 7점 척도로서, 1981년에는 각 성격의 10문항씩 30문항을 추출하여 축약형으로도 개발되었다. 양성성 이론은 한 인간의 성격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형적인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통합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 이론이다(Bem, 1974). 이 이론은 인간 성격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극의 반대의 개념으로 보았던 기존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성 차이와 개인차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의 적용도가 높은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Chung, 1987).

그러나 BSRI의 사용에는 번역상의 오류 문제나 미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리의 관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된 성역할 검사도구들로 Kim(1988)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지, 및 Chung(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I)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도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일부 문항이 응답을 유도할 수 있으며(Kim, 1988), 성역할 검사 문항의 선정과 신뢰도,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일부 제한된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문항의 적합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Chung, 1990). 특히, 여성성 척도의 경우에는 그 문항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Kim,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보다 정확하게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항개발 과정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도구의 문항들과 이들 문항이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성인들에게서 여성성, 남성성,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개발하고,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대상과 객관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도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인 분석방법과 폭넓은 대상을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진행과정

1) 문항개발

개발될 도구를 구성할 문항의 목록은 기존에 개발된 도구에 포함된 문항과 문항개발자 10명이 추가한 문항들로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 참여한 문항개발자 10명은 25세 이상의 기혼 성인 남녀로서 본 연구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생들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로 선정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검사는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을 검사의 문항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 문항들은 우리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여성, 남성,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문항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참고로 한 도구는 BSRI, Kim(1988)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지, Chung(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 등이었다. 기존의 도구 문항과 문항 개발자들이 추가한 문항을 합하여 일차로 만들어진 문항은 남성성 문항 27개, 여성성 문항 33개, 바람직성 문항 16개 등, 모두 78개 문항이었다. 이 과정에서 문항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였으며,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특히, 성별 특성이나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개발할 때, 응답자의 응답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정적 문항은 폐제하였다.

2) 문항의 타당도 검사

일차 개발된 문항목록에 포함된 78개의 문항은, 18명의 전문가에 의해 그 타당도가 평가되었다. 문항의 타당도는 남성성, 여성성 및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문항으

로서 얼마나 타당한가를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도구의 예비문항 선택

일차 개발된 문항목록의 78개 문항 중 타당도 평가자의 70%이상, 즉 13명 이상의 전문가가 4점이나 3점으로 평가한 문항을 도구의 예비문항으로 선택하였다. 일차 타당도가 인정된 이들 예비문항들은 다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이 도구의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alpha를 구하여 검증하였으며,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4) 도구의 척도 결정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화를 위한 척도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Bem(1974), Kim(1988), Chung(1990) 등이 개발한 도구는 모두 7점 척도로서 '보통이다'(4점)를 중심으로 긍정과 부정의 강도에 따라 1점에서 7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척도를 자세히 세분화하는 것이 사용상의 불편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서는 응답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5점 척도의 경우에도 '보통이다'(3점)를 중심으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긍정과 부정의 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배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 첫째로는 상에 따른 전형적 성격을 나타난 각 문항에 대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측정수준을 표기할 때 '보통이다'라는 측정수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성격특성을 표기할 때 불필요하게 부정의 강도에 따라 다른 측정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표기에 혼돈을 가져온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보통이다', 3점을 중심으로 긍정, 4점과 5점 및 부정, 1점과 2점의 측정수준을 제시하여 등간척도에서 가정하는 등간의 가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척도를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척도로 정하였다. 측정 결과에 의한 응답자의 성격할 경계감 유형은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여 양성적, 여성적, 남성적, 및 미분화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5) 예비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타당도 평가를 거쳐 선택된 예비문항의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Cronbach alpha를 구한 후,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0.2 미만인 문항이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문항분석이 이루어진 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검증된 문항들만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이때 나타난 요인들이 문항목록 개발 당시의 문항 분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재분류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 모형은 PCA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요인회전은 varimax를 적용하였다.

6) 도구의 확정

문항분석에 의해 일차 걸러진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문항들 중 요인적재량이 0.4 이하인 문항은 도구 문항에서 제외함으로써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된 요인별 문항들은 각 요인에 따라 다시 문항분석을 시행하여 문항-총점 상관관계 및 신뢰도 계수를 구한 후, 이들을 참고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선에서 도구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2 연구대상

1) 문항의 타당도 검사

일차 개발된 문항목록에 포함된 78개 문항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서는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였다. 이 집단은 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와 관련 분야의 의사,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였으며, 여자 11명, 남자 7명이었다.

2) 도구 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가능한 한 자료수집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나라 전역에서 대상자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의 6개 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등,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기혼자들로서 남, 녀 1,127 명을 표출하였다. 대상자들의 표출은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별로 1-2개의 표집 단위를 선정하였으며, 각 표집단위에 따라서는 100명-120명씩 편의표출을 하였다.

3. 자료수집

1) 문항의 타당도 검사

본 연구자들과 연구 보조원 두 명이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할 전문가 18명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여 타당도 평가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타당도 평가 설문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이들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2) 도구 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본 연구자들과 연구 보조원들이 직접 회사, 학교, 아파트 등을 방문하여 본 설문지 응답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한해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직접 방문이 불가능했던 일부 지역은 해당 지역에 자료수집 담당자를 두어 이들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설문지는 총 1,400부였으나 이중 1,15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2.1%), 이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1,127개의 설문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아 39.3%를 차지하였으며, 50대인 경우는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인 경우가 59.3%였다. 결혼기간은 5년 이하인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7.1%였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88.4%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아 41.1%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7%였다. 종교는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와 불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7.3%, 23.3%였다.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77.5%였으며, 건강상태도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53.0%로 가장 많았다.

2. 예비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78개의 문항목록 중 문항의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택된 예비문항은 총 57개로서 남성성 문항 21개, 여성성 문항 24개, 바람직성 문항 12개 등이

었다. 이들 문항의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계수는 최고 0.5659부터 최저 -0.0442까지 분포하였으며 0.2 이상인 문항은 54개, 0.3 이상인 문항은 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0.2 미만으로서 도구의 최종 문항에서 제외된 문항은 19번 문항 '쉽게 영향을 받는다'(0.1836), 45번 문항 '쉽게 운다'(0.1144), 그리고 1번 문항 '의존적이다'(-0.0442) 등이었으며, 모두 여성성 문항이었다.

그러나, 이들 54개 문항을 다시 문항분석 한 결과 여성성 문항 중 40번 '순종적이다' 문항이 문항-총점간의 상관계수가 0.2미만인 0.1927인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외한 53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따라서 일차 문항분석 결과 남은 53개 문항은 남성성 문항 21개, 여성성 문항 20개, 바람직성 문항 12개였다. 예비문항 57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0.9254였으며, 문항분석 결과,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낮은 위의 네 문항을 제외한 5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9307이었다<Table 1>.

<Table 1> Item analysis of the preliminary

items (n=1,127)			
rank	item number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	27	5659	.9229
2	8	5609	.9229
3	48	5540	.9233
4	20	5536	.9232
5	26	5519	.9232
6	35	5513	.9234
7	15	5446	.9231
8	49	5441	.9233
9	31	5434	.9234
10	47	5421	.9234
11	28	5410	.9234
12	57	5403	.9232
13	46	5395	.9233
14	24	5333	.9233
15	14	5308	.9232
16	7	5278	.9233
17	52	5133	.9234
18	29	5127	.9234
19	6	5092	.9234
20	32	5047	.9235
21	36	5016	.9235
22	25	4952	.9237
23	13	4946	.9235
24	44	4911	.9235
25	37	4890	.9237

<Table 1> Item analysis of the preliminary items(continued) (n=1,127)

rank	item number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26	21	.4805	.9236
27	5	.4756	.9237
28	53	.4590	.9238
29	23	.4577	.9238
30	41	.4453	.9240
31	18	.4451	.9239
32	38	.4441	.9239
33	42	.4325	.9241
34	9	.4275	.9240
35	2	.4220	.9241
36	56	.4139	.9241
37	12	.4022	.9243
38	51	.3970	.9243
39	34	.3736	.9244
40	43	.3517	.9247
41	10	.3455	.9247
42	33	.3383	.9247
43	3	.3374	.9247
44	30	.3145	.9250
45	50	.2906	.9253
46	11	.2889	.9251
47	16	.2681	.9252
48	17	.2631	.9255
49	22	.2387	.9256
50	4	.2345	.9255
51	54	.2306	.9256
52	55	.2296	.9256
53	40	.2239	.9257
54	39	.2154	.9258
55	19	.1836	.9259
56	45	.1144	.9270
57	1	-.0442	.9273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분석 결과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0.2 이상인 53개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문항의 분류를 문항목록 개발 당시의 분류와 일치하는 지도 비교, 검토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문항은 Eigen value 2.0 이상에서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수는 요인 1의 경우 22개, 요인 2의 경우 17개, 요인 3의 경우 14개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들 중, 각 요인마다 요인적재량이 0.4 이하인 문항은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의 경우 18번 문항, '적응력이 있다'(0.381)와 4번 문항, '체면을 중시한다'(0.305) 등의 문항이 제외되고 20개 문항이 남았으며, 요인 2의 경우, 33번 문항, '집안 일을 잘한

다'(0.399)와 30번 문항,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는다'(0.388) 등의 문항이 제외되고 15개 문항이 남았다. 요인 3의 경우는 14개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4 이상이었으므로 제외된 문항이 없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문항목록 개발 당시의 분류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요인 1의 20개 문항은 대부분이 문항목록 개발 당시 남성성 특성에 포함되었던 문항이었다. 그러나, 개발 당시 남성성 문항이었던 것들 중 37번 문항, '자기 소신을 지킨다'와 26번 문항, '생각이 깊다' 등의 두 문항이 요인 2에 포함되었으며, 바람직성 특성에 포함되었던 46번 문항, '자부심이 강하다', 51번 문항, '상대방을 용서한다' 등의 문항이 요인 1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요인 1은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성성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므로 요인 1은 남성성 하위척도로 명명되었다.

요인 2에 포함된 15개 문항의 경우는 문항목록 개발 당시 바람직성 특성에 해당되었던 문항 12개 중 요인분석 결과 요인 1로 분류된 세 개 문항과 요인 3으로 분류된 한 개 문항, 즉 2번 문항, '재치가 있다'를 제외한 8개 문항과, 문항목록 개발 당시 남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2개 문항 및 여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5개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문항개발 당시 여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가 요인 2로 분류된 5개 문항은 '인정이 많다', '따뜻하다', '이해심이 있다', '동정심이 있다', '다정하다' 등이었다. 요인 2는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 문항들이 다른 성과 비교해 볼 때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요인 2는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로 명명되었다.

요인 3에 포함된 14개 문항의 경우는 문항목록 개발 당시 여성성 특성에 해당되었던 문항 13개와, 바람직성에 해당되었던 문항 1개, 즉 '재치가 있다'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요인 3은 여성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성 하위척도로 명명되었다. 이상과 같은 자료분석 결과, 세 개 요인에서 요인적재량이 0.4미만인 문항을 제외하고 각 요인에 남은 문항의 수는 요인 1 남성성 하위척도의 경우 20개, 요인 2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의 경우 15개, 여성성 하위척도의 경우 14개였다<Table 2>.

3. 도구의 최종 문항

<Table 2> Factor analysis of 53 items (n=1127)

factor (number of items)	item number	factor loadings (factor 1)	factor loadings (factor 2)	factor loadings (factor 3)
	8	.773		
	21	.728		
	15	.726		
	6	.724		
	57	.718		
	7	.714		
	14	.688		
	38	.677		
	9	.664		
	13	.648		
1 (22)	5	.615		
	27	.592		
	46	.586		
	39	.585		
	51	.579		
	55	.568		
	54	.556		
	56	.556		
	43	.476		
	20	.468		
	18*	.381		
	4*	.305		
	48		.703	
	49		.671	
	42		.656	
	47		.648	
	28		.644	
	53		.642	
	35		.633	
2 (17)	25		.614	
	31		.607	
	41		.606	
	26		.600	
	23		.539	
	24		.520	
	12		.517	
	37		.456	
	33*		.399	
	30*		.388	
	3			.665
	17			.641
	44			.600
3 (14)	10			.585
	29			.582
	11			.536
	36			.521
	32			.504
	52			.492

<Table 2> Factor analysis of 53 items (continued) (n=1127)

factor (number of items)	item number	factor loadings (factor 1)	factor loadings (factor 2)	factor loadings (factor 3)
	50			.484
	22			.482
3 (14)	2			.475
	16			.450
	34			.447

* 제외된 문항

요인분석 결과 남겨진 53개 문항으로부터 도구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각 요인별 문항분석을 시행하여 문항-총점의 상관관계와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항분석 결과를 기초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숫자를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먼저 각 요인별 문항분석 결과를 보면, 남성성 문항 20개의 경우,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저 0.154에서 최고 0.727까지 분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남성성 문항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0.2보다 적게 나타난 '상대방을 용서한다'라는 한 개 문항이 일차적으로 최종 문항에서 제외되었다. 바람직성 문항 15개의 문항분석 결과는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경우 최저 0.4468에서 최고 0.672까지 분포하였으며 상관계수가 0.2 미만인 문항은 없었다. 여성성 문항 14개의 경우도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최저 0.305에서 최고 0.575까지 분포함으로써 상관계수 0.2 미만인 문항은 없었다.

도구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요인별 문항의 수를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요인별 문항의 내용과 수, 그리고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각 요인별 문항의 수를 15개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문항 수 15개를 맞추기 위해 각 요인에 따라 남은 문항과 부족한 문항을 제외시키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문항 수를 조정하였다.

먼저, 요인 1 남성성 문항의 경우, 남겨진 19개 문항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낮은 순서대로 4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남겨진 15개 문항을 문항분석하여 문항 수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성 문항 15개의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저 0.4968에서 최고 0.7386까지 분포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0.9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문항으로 한 개의 문항의 부족한 요인 3 여성성 문항의 경우는 57개 예비문항에 대한 첫번째 단계의

<Table 3> Item analysis of the final items

(n= 1,127)

subscales	item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Alpha
masculinity	having leadership(통솔력이 있다)	.739	.913	.922
	driving(추진력이 강하다)	.724	.914	
	confident(자신감에 차 있다)	.699	.915	
	brave(용기가 있다)	.697	.915	
	initiative(주도력을 발휘한다)	.679	.915	
	active(활동적이다)	.678	.916	
	powerful(박력이 있다)	.670	.916	
	independent(독립심이 강하다)	.632	.917	
	ambitious(포부와 야망이 있다)	.631	.917	
	dealing with serious matters well(큰일을 잘 처리한다)	.614	.918	
	adventurous(모험심이 강하다)	.590	.918	
	proud(자부심이 강하다)	.588	.918	
	desiring achievement(성취욕이 있다)	.587	.918	
	believable(믿음직하다)	.527	.920	
physically strong(체력이 강하다)	.497	.921		
social desirability	kind(인정이 많다)	.672	.889	.899
	thankful(감사할 줄 안다)	.639	.890	
	warm(따뜻하다)	.636	.890	
	polite(예절이 바르다)	.629	.890	
	humane(인간애가 있다)	.616	.891	
	understanding(이해심이 있다)	.603	.891	
	thoughtful(생각이 깊다)	.589	.892	
	conscientious(양심적이다)	.588	.892	
	helping others(남에게 도움을 준다)	.584	.892	
	sympathetic(동정심이 있다)	.564	.893	
	respectful to elders(웃어른을 잘 섬긴다.)	.558	.893	
	affectionate(다정하다)	.546	.894	
	diligent(근면하다)	.503	.896	
	sincere(진실하다)	.483	.896	
keeping conviction(소신을 지킨다)	.468	.896		
femininity	using beautiful language(말을 아름답게 한다)	.586	.825	.841
	tender(부드럽다)	.572	.827	
	sweet(상냥하다)	.558	.827	
	emotional(감정이 풍부하다)	.556	.827	
	delicate(섬세하다)	.537	.828	
	charming(애교가 있다)	.522	.829	
	loving beautiful things(예쁜 물건을 좋아한다)	.521	.828	
	enjoying romantic story(낭만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510	.829	
	careful(세심하다)	.480	.831	
	enjoying cooking(요리하기를 좋아한다)	.450	.833	
	jealous(질투심이 있다)	.393	.836	
	sensitive(민감하다)	.393	.836	
	tactful(재치가 있다)	.373	.837	
	obedient(순종적이다)	.309	.841	
talkative(말이 많다)	.295	.842		

문항분석에서 제외된 4개 문항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가장 컸었던 여성성 문항(개발당시)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제외된 4개 문항은 문항개발 당시 모두 여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가장 컸었던 문항은 '순종적이다'였으며($r = .224$), 이 문항을 추가한 15개의 여성성 문항을 문항분석하였

다. 그 결과,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저 0.2947에서 최고 0.5715까지 분포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0.8413이었다. 요인 2 바람직성 요인의 경우는 15개 문항이 그대로 선택되었으며, 이들의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8987이었다.

이상과 같은 최종 문항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개발 단계에서 처음 개발된 문항목록의 78개 문항 중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택된 예비문항은 총 57개였다. 이중 두 차례에 걸친 문항분석 결과 문항-총점 상관관계가 0.2 미만이었기 때문에 4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53개의 문항이 남았다. 이들 문항은 요인분석에 의해 Eigen Value 2.0 이상에서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요인 적재량이 0.4 미만인 문항 4개가 제외되어 49개의 문항이 남았다. 이들 문항은 각 요인별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기초로, 각 요인마다 15개씩의 문항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의 문항은 남성성 하위척도 15개, 여성성 하위척도 15개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 15개로서, 총 45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개발이 확정된 도구 문항 45개의 문항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최저 0.205에서 최고 0.576까지 분포하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0.929였다<Table 3>.

V. 는 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KGRI: Korean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는 Bem의 양성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들 문항은 다시 남성성 하위척도, 여성성 하위척도 및 응답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배경 문항으로만 사용되는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 등, 세 개의 하위척도에 각각 15개 문항씩 포함되어 있다.

먼저, 도구의 이론적 체제와 문항 수에 있어 다른 기존의 도구들과 비교해 보면, 이론적 체제의 경우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이 양성성 이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구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erogatis와 Melisaratos(1979)의 성역할 정척도의 경우는 Bem과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여성성, 남성성 등 두개의 하위영역에 성고정관념적 형용사로 구성된 문항이 15개씩 포함되어 있다.

문항 수의 경우는 Bem(1974)이 처음 개발한 도구는 각 성격마다 20문항씩 총 60문항을 가지고 있으며, 1981년에 개발된 축약형은 각 성격마다 10문항씩 30문항을 가지고 있다. Bem의 이론을 기초로 한 Chung(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는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척도에 각 20문항씩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im(1988)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지의 경우는 여성성, 남성성 성격 각 15문항과 중성성 성격 10문항 등,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문항 수는 다른 도구들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GRI는 처음 문항목록을 작성할 때부터 성격특성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도구의 문항은 기존 타 도구의 문항에 비해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의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도구에서는 부정적 성격특성에 대한 응답의 왜곡과 회피를 예방하여 응답 결과의 정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을 최소화하였다. 더욱이 단계적인 문항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45개의 문항 중에는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정적 문항으로 인한 응답오류는 최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의 경우 긍정적 특성들만으로 측정된 결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역할 특성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Lee, 1996), 이 점을 완전히 간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KGRI의 각 하위척도에 따라 문항의 내용을 다른 도구들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먼저 남성성 문항의 경우는 '자부심이 강하다'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문항개발 당시 모두 남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도구의 문항특성이 기존 도구의 문항특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도구의 남성성 문항은 활동성, 적극성 등과 같이 자기주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성격 특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통념적으로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성 문항의 경우도 본 도구의 문항이 '재치가 있다'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항개발 당시 여성성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도구의 문항 특성은 기존 도구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문화권에서 통념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감성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의 경우는 일부 문항이 문항개발 당시 남성성, 혹은 여성성 특성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요인분석에 의해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으로 다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도구의 문항들 중 일부 성역할 분류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었던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 의해 다르게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Kim(1997)도 기존 도구들에 있어 비상식적 성역할 분류 양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여성성 척도에 의해 유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문항개발 당시 여성성 특성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 5개가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으로 분류된 점이 인상적인데, 그 원인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과거 여성적 성격으로 여겨졌던 좋은 성격 특성들이 이제는 성별을 떠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분류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근대화, 산업화 이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부분적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 전, 폐쇄적인 유교권 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성격 특성들이 이제는 이들 성만의 특성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4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가 0.93이며, 각 하위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최하 0.84에서 최고 0.92이다. 이는 ESRI 단축형의 경우 0.81-0.90, Chung(1990)이 개발한 KSRI의 경우는 0.75-0.91 등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현재의 우리 실정과 문화에 맞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된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이나 부정적 의미의 문항을 거의 없다. 둘째,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국 여러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대상을 사용하였다. 셋째, 도구문항의 선정이 통계적 절차에 의해 매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통계결과에 의한 객관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문항의 내용과 분류를 분석해 보았을 때,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문항 표현상의 일관성이 부족한 편은 본 도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일부 문항의 경우 앞으로 그 표현을 더욱 세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정체감은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화된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으로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라고 생각되는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Kaplan & Bean, 1976). 그러므로 성역할 정체감은 단지 신체적인 성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망라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호 연관관계 안에서만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KGRIT)를 개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는 문항개발, 문항의 타당도 검사, 도구의 예비문항 선택, 도구의 척도 결정, 예비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및 최종 문항의 선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문항개발 단계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의 문항과 25세 이상의 기혼 성인 남녀, 10명으로 구성된 문항개발단이 추가한 문항을 기초로 개발될 도구의 문항을 구성할 문항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우리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여성, 남성,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성격 특성들로서 의미가 중복되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제외한 후, 모두 78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문항의 타당도 검사와 도구의 예비문항 선택 단계에서는 문항목록에 포함된 78개의 문항 중, 18명의 전문가 평가단 중 70% 이상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54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도구의 점수화를 위한 척도는 사용상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응답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점 Likert 척도로 결정하였다.

예비문항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단계에서는 54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비문항을 사용하여 6개 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1,127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문항-총점 상관관계수가 0.2 미만인 문항과 요인적재량이 0.4 미만이 문항이 제외되어 49개의 문항이 남았다.

도구의 확정 단계에서는 49개 문항을 각 요인별로 문항분석하여 문항-총점 상관관계 및 신뢰도 계수를 구한 후, 이들을 참고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선에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45개의 문항이 KGRII의 문항으로 결정되었다. 이들 문항은 여성성 하위척도 15문항, 남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5문항 등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0.929였으며, 각 하위척도에 따라서는 남성성 척도의 경우 Cronbach alpha 0.9219, 여성성 척도의 경우 Cronbach alpha 0.8413,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 Cronbach alpha 0.8987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KGRID)는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확인된 도구로서 향후 간호실무와 간호연구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간호대상자의 생활상의 경험이나 노화과정, 그리고 건강문제와 관련된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of Consul and Clin Psych, 42*, 155-162.

Bem, S. L.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 of Consul and Clin Psych, 45*, 196-205.

Choi, E. Y. (1998).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health promoting lifestyle, sex role identity and self efficacy in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orea.

Choi, Y. S., Jang, C. J., Jo, H. S., Choi, Y. J., Jang, S. B., Park, Y. S., Lee, N. H., Jo, D. S., & Lee, E. H. (1999). *Women's health nursing*, Seoul, Sumunsa.

Chung, J. K. (1987). An androgynous approach to the study of sex roles. *J of Korean Women's Studies, 3*, 132-160.

Chung, J. K. (1990).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Korean J of Social Psychology, 5*(1), 82-92.

Citron, H., & Kartman, L. L. (1982).

Preserving sexual identity in the institutionalized aged through activities.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3*(1), 55-63.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 of Sex and Marital Therapy, 5*, 244-281.

Drench, M. E., & Losee, R. H. (1996). Sexuality and sexual capacities of elderly people. *Rehab Nurs, 21*(3).

Haffner, D. (1994). Sexuality and aging: The family physician's role as educator. *Geriatrics, 49*(9), 26.

Kaplan, A. G., & Bean, J. P. (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Little Brown.

Kim, N. S. (1997). *Scoring the KSRI: Adjustment of the raw scores and establishment of the sample-free cut-off poi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Kim, Y. H. (1988). Development of Korean Sex Role Inventory. *J of Asia Women, 27*, 153-182.

Korean Britannica Online. (1999), <<http://premium.britannica.co.kr/>>

Lee, J. O. (1996). Relationships among mothers' sex role identity, sex role stereotypes and peer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The J of Child Educ, 5*(2), 14-27.

Yang, S. O., Kim, S. K., Lee, H. J., Lee, H. I., & Han, Y. R. (1996). *Woman and health*. Seoul, Sumunsa.

Money, J. & Erhardt, A. (1972). *Man and Woman, Boy and Gir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avage, J. S. (1981). Effect of crisis on female sexual identity. *Issu in Heal Care of Women, 3*, 151-160.

Shively, M. G., & De Cecco, J. P. (1977). Components of sexual identity. *J of*

Homosexuality, 3, 41-48.

- Abstract -

Development of Korean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

Lee, Byung-Sook · Kim, Myung-Ae*
Koh, Hyo-Jung**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 scale of gender role identity in Korean adults based on the Bem's theory of androgyny. Although there were several tools in Korea, they were revealed having some problems of cultural differences, translation biases, and methodological problems.

Methods: A list of 78 items were developed using the existing tools and descriptions from 5 married couples. The items were the typic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hich were manifested by gender, male or female. And the list contained several items which were the socially desirabl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hich would be simply used as contextual items. Validity of the 78 items were screened

by 18 expert panels with 4 point Likert scale, and 57 items were judged as highly valid from 70% of the experts, which were selected as preliminary items for the tool. Using the preliminary tool which was developed as a 4 point Likert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1,127 subjects for item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53 items were remained, because 4 items whose item-total correlation were lower than 0.2 were excluded by the result of item analysis. Factor analysis was done with the 53 items, and 49 items whose factor loadings were same and higher than 0.4 were remained. 3 factors were identified with eigen value 2.0, and these factors were named as masculinity, femininity, and social desirability.

Results and Conclusion: KGRII (Korean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 which contained 45 items was developed, with 15 items for 3 factors. The reliability of the tool was very high. Cronbach alpha of the tool was 0.929, and alpha of the subscales were ranged from 0.841 to 0.922.

Key words : Gender role identity

*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